

우리 모두 함께 하는 자리

2025_summer

통권 1088호

두레기판



2025년 희년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contents

2025_summer
통권 1088호

- 02 2025년 희년 기도문
- 03 목차
- 04 말씀읽기 · 말씀 다지기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32 티노생각
- 34 탕이와 아치
- 36 영어 오디오북
- 37 있어보이는 우리말
- 38 오! 가.작.통
- 40 청년대회란?
- 41 희년이란?
- 42 우리 성지 프사
- 44 성지 부루마블

- 46 보아라찾아라환호하라
- 48 우리들 이야기
- 50 희망의 말씀 순례



말씀 읽기

6월 1일 주님 승천 대축일 루카 24, 46-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6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47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5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51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53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말씀 다지기

주님 승천 대축일 (루카 24, 46-53)

1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신 날이에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를까요?

- 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 ② 주님 부활 대축일
- ③ 주님 승천 대축일
- ④ 주님 성탄 대축일

2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루카 24, 48)

3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오르시지만 제자들과 성령을 통해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특별히 청하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요한 20, 19-23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 다지기

성령 강림 대축일 (요한 20, 19-23)

-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무엇을 주셨나요?
 ① 성령 ② 생명 ③ 성혈 ④ 생수

- 2 다음은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빈칸을 채워보아요.

“()가 너희와 함께 !”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해 주면 그가 ()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3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 받고 싶은 성령의 은총과 열매가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6월 15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요한 16, 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말씀 다지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요한 16, 12-15)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한 분 하느님” 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삼위일체 ② 일심동체 ③ 두사부일체 ④ 자웅동체

2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무엇이라 소개하시나요? 빈칸을 채워보아요.

그러나 그분 곧 ()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서로가 사랑안에 일치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사람을 한 번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6월 22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루카 9,11~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말씀 다지기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 (루카 9, 11ㄴ-17)

- 1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두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나 남게 하셨어요. 다음 중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① 오비이락 ② 오병이어 ③ 오리무중 ④ 오월동주

- 2 오늘 복음 속에서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군중들을 돌려보내어 음식을 구하게 하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적어 보아요. (루카 9, 13)

- 3 오늘은 성체성혈 대축일이예요.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을 적어보아요.



말씀 읽기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마태 16, 13-19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 다지기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마태 16, 13-19)

-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세례자 요한 ② 엘리야 ③ 예레미야 ④ 다윗

- 2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반석)에게 하신 말씀(17절~19절) 가운데 와닿는 말씀을 적어보아요.

- 3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셨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님(266대 교황님)이 하느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황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보아요.



말씀 읽기

7월 6일 **연중 제14주일** 루카 10, 1-9

그때에 1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일흔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3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4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5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8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9 그곳 병자들을 고쳐 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말씀 다지기

연중 제14주일 (루카 10, 1-9)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일흔 두 제자를 지명하여 파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며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물건이 바르게 적힌 것을 골라보세요.

- ①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장갑
- ②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 ③ 양식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 ④ 돈주머니, 여행 가방, 신발

2 제자들은 마귀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들이 복종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에서 찾아 적어보세요.

3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하느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말씀 읽기

7월 13일 **연중 제15주일** 루카 10, 25-37

그때에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27 그가 “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28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29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30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31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2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33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34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말씀 다지기

연중 제15주일 (루카 10, 25-37)

- 1 오늘 복음에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모두 골라보세요.
 - 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②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 ③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 ④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 2 예수님께서서 율법 교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를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착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비유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서 율법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적어보아요.

- 3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사마리아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성찰한 뒤 친구들과 나눠봅시다.



말씀 읽기

7월 20일 연중 제16주일 루카 10, 38-42

그때에 38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41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42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 읽기

7월 27일 연중 제17주일 루카 11,1-13

1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3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4 저희에게 잘못된 모든 이를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5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6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7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졸곤 졸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11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12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말씀 다지기

연중 제17주일 (루카 11, 1-13)

- 1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답을 적고 함께 노래해봅시다.



@하늘바라기-주님의 기도(황영삼 곡)

- 2 오늘 복음을 읽고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어보세요.

- 3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나누어 보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처럼 잠시 성전에 머물러 하느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말씀 읽기

8월 3일 **연중 제18주일** 루카 12, 13-21

그때에 13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14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17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18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19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20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21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18주일 (루카 12, 13-21)

- 1 오늘 복음은 무엇을 경계하라고 합니까?
 ① 모든 탐욕 ② 모든 악 ③ 모든 죄 ④ 모든 재산

- 2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비유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비유 말씀 중 마지막 구절을 적어보아요.

- 3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모아두고 주지 않으려고 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말씀 읽기

8월 10일 **연중 제19주일** 루카 12, 35-4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36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37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39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19주일 (루카 12, 32-48)

- 1 오늘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 (40절)은 누구를 뜻합니까?
 - ① 아담의 아들
 - ② 엄마 아들(나)
 - ③ 예수 그리스도
 - ④ 오스트랄로 피테구스

- 2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 보아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을 켜 놓고 있어라. ○○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 3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12,40) 라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상상하며 나누어 보아요.



말씀 읽기

8월 17일 **연중 제20주일** 루카 12, 49-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9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50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51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20주일 (루카 12, 49-53)

- 1 예수님께서서는 회개를 위한 메시지 선포에서 오는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우리가 정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나타내주는 동사는 무엇인지 찾아보아요.
- ① 슬퍼하다 ② 넘어지다 ③ 짓눌리다 ④ 아프다

- 2 오늘 복음을 잘 읽고,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아요.

- ▶ “나는 세상에 ○을 지르러 왔다. 그 ○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 ▶ “내가 세상에 ○○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을 일으키러 왔다.”

- 3 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말씀 읽기

8월 24일 연중 제21주일 루카 13, 22-30

그때에 2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21주일 (루카 13, 22-30)

- 1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이 ‘좁은 문’입니까?
- ① 틈이 비좁은 문
 - ② 높이 3cm, 세로 2cm, 가로 5cm
 - ③ 구원에 이르는 문
 - ④ 쪽문
- 2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 “너희는 아브라함과 ○○○과 ○○과 모든 ○○○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① 예언자, 야곱, 메시아
 - ② 이사악, 아담, 예언자
 - ③ 예언자, 아담, 메시아
 - ④ 이사악, 야곱, 예언자
- 3 예수님께서는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아요.



말씀 읽기

8월 31일 **연중 제22주일** 루카 14, 1.7-14

1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7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말씀 다지기

연중 제 22주일 (루카 14, 1.7-14)

1 오늘 복음에서 ‘안식일’ 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 ① 안심하고 식단 관리하는 날
- ② 안심하고 식단 포기하는 날
- ③ 유대교와 기독교(천주교, 개신교)의 거룩한 날
- ④ 이스라엘의 국가 공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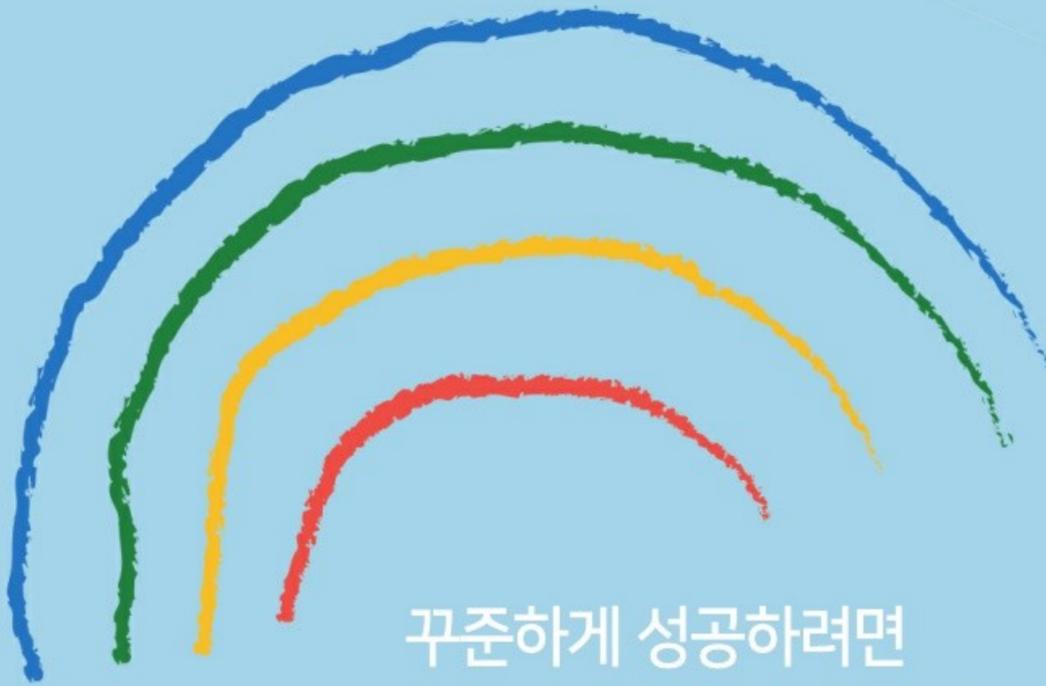
2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

- ▶ “누가 너를 ○○ 잔치에 초대하거든 ○○○에 앉지 마라.”
- ▶ “초대를 받거든 ○○○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① 혼인, 테이블, 데스크
- ② 혼인, 윗자리, 끝자리
- ③ 백일, 테이블, 끝자리
- ④ 백일, 윗자리, 끝자리

3 오늘 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선행을 베푼 적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보고,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상황은 어떤 건지 생각하며 나누어 보아요.

앙큼한(*^_^*)
TINO생각



꾸준하게 성공하려면
만족은 없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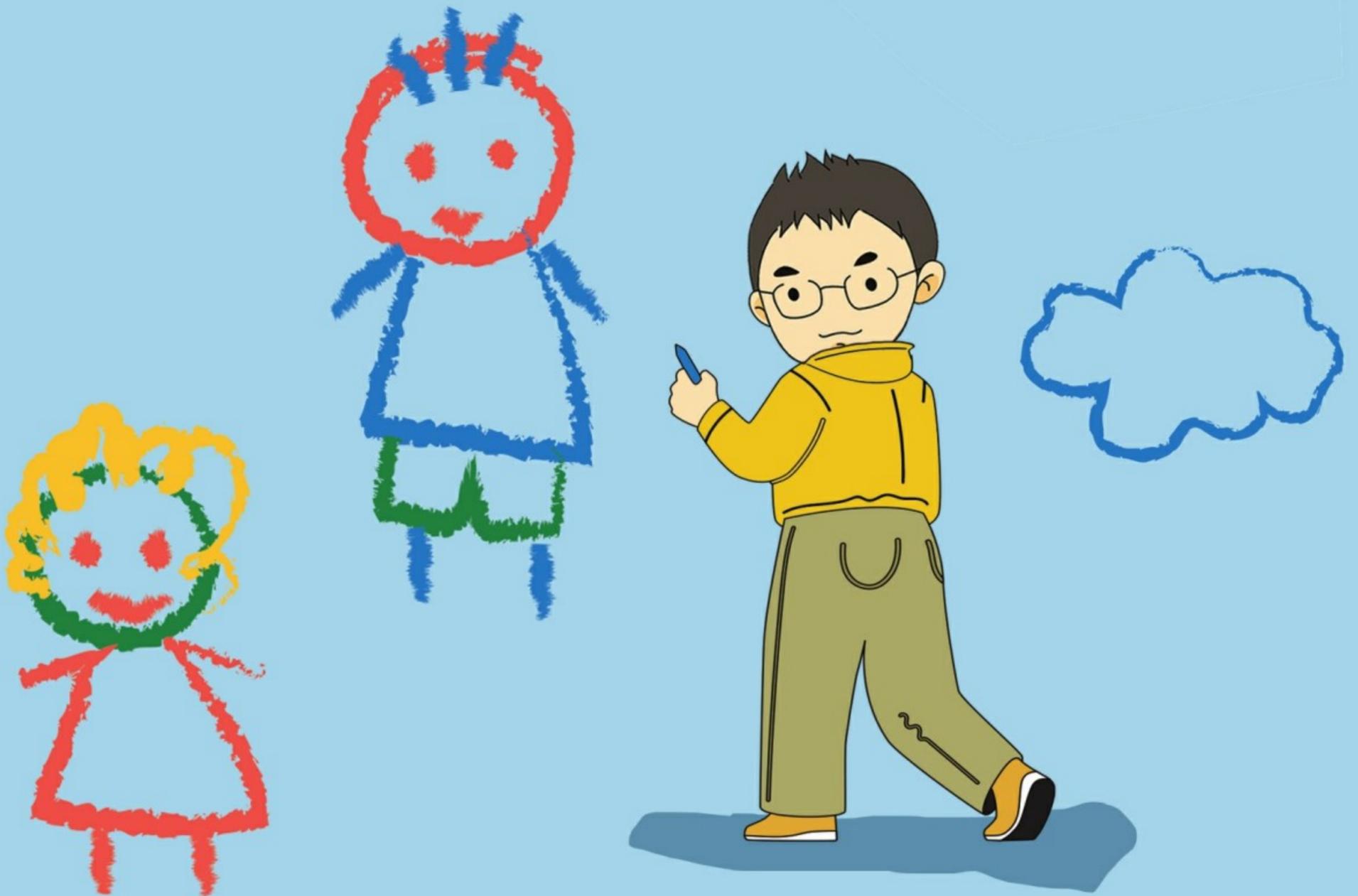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합니다.

동안을 지키는 건지?

동심을 지키는 건지?

[양큼] 티노



①



②



③



④



⑤



⑥



태미와 아치

글/그림_이윤식 마르코



"미루지 마
지금이야!
마음을 먹어!!"

영어 오디오북

Mystery of faith

글 : 감사랑

감사 기도의 핵심은 '감사'와 '축성'입니다.
'감사송'에서 사제는 거룩한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구원 업적 전체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축성은 '축성 기원 성령 청원'과 '성찬 제정과 축성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봉헌한 예물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경이로운 신앙의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 Let us proclaim the mystery of faith:
+ 신앙의 신비여!

◎ A : We proclaim your Death, O Lord,
and profess your Resurrection until you come again.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 B : When we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we proclaim your Death, O Lord, until you come again.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B : Save us, Savior of the world,
for by your Cross and Resurrection, you have set us free.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ANDONG_DUREPAN



있어보이는

우리말

글: 어흥

두레판 친구들 안녕?

지난 호에서 성모님의 순종에 관한 표현인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Ecce ancilla Domini).”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번 호에서 배워볼 표현은 “내 양들을 돌보아라.”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표현을 따라 써보면서 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함께 묵상해 보아요.

"Pasce oves meas"

파스체 오베스 메아스

"Pasce oves meas"

(_____)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오! 가_{톨릭} 작_은 전_통

글: 김진심

제목: 기리며,,,

어차피 안 읽을 거지? 그냥 편하게 반모로 할게!

들은 얘기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성당을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던 분이라서, 그 본당 사람들이 대부분 할머니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자들이 장례식을 찾아가서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어.

우리(천주교)는 누가 돌아가시면, 그분을 위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미사도 하잖아? 그래서 그 성당 신자들은 할머니를 위해 당연히 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할머니의 자녀들이 신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분들은 성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데. 그래서 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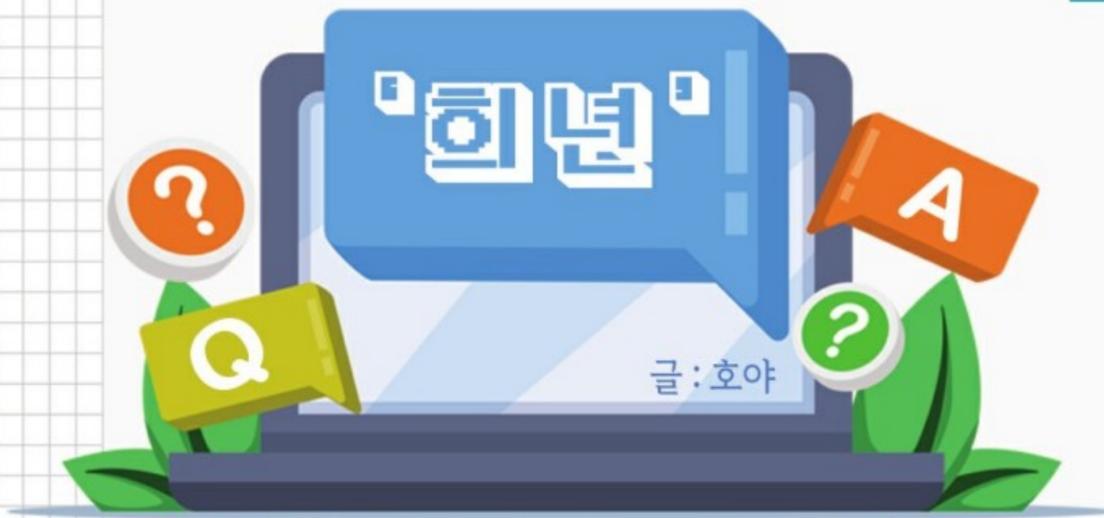


유족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지. 신자 들은 서운해했어. 신부님도 아쉬운 마음이 컸어. 그러다가 신부님이 잠시 고민하시고, 가족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데. '할머니 성당 오랫동안 다니셨고, 성당에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좋은 곳 가시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에 설득이 돼서, 미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구. 신부님 말씀이 맞긴 해. 할머니는 가족들하고만 헤어지는게 아니고, 성당에 동료 들하고도 헤어지는 거니까,,, 교우(성당 친구) 들하고 인사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는 거지.

장례식장에 가 본 적 있어? 영정 사진 앞에서 절 하고, 성수 뿌려봤어? '연도'(연옥영혼을 위한 기도) 해 본 적 있어? 장례미사는?

성당에는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하느님 품으로 가기까지, 모든 과정에 예식과 기도가 있어. 돌아가신 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를 갖추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분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닐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해.

생동감 넘칠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너희도 점점 늙고 있잖아? 너무 낯설어 말길 바래.



Q1 하느님은 왜 회년을 주셨을까요?

회년은 단지 '전대사'를 받는 특별한 해가 아니라, '첫마음으로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초대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이에게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라세요. '회년을 지켜라'는 말씀은 곧 '기억하고, 나누고, 용서하라'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주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잠시 멈춰!"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초대하세요. '희망의 순례자'라는 이번 회년 로고-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향해, 두 명의 사람이 서로를 돕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도 깊은 상징을 담고 있어요. 이 로고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그 은총의 길이 바로 회년의 여정이에요.



Q2 나도 회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회년은 성직자나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예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어제 내가 심했어.미안해"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회년이에요. 힘들어 보이는 친구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도 회년이고요. 회년은 특별한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사랑하는' 작은 실천이에요.

Q3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회년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회년이나 하느님을 떠올릴 틈조차 없을 때가 많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멈춰야 해요. 하느님은 우리가 성취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쉼'을 알고 '자비'를 기억하는 삶을 살길 바라세요. 하루 3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느님께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굴 미워했지?", "혹시 무시한 친구는 없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회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호야 신부님's
질문 하나!

“회년이 여러분 마음속의 ‘쉼표’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쉼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

성

프

리

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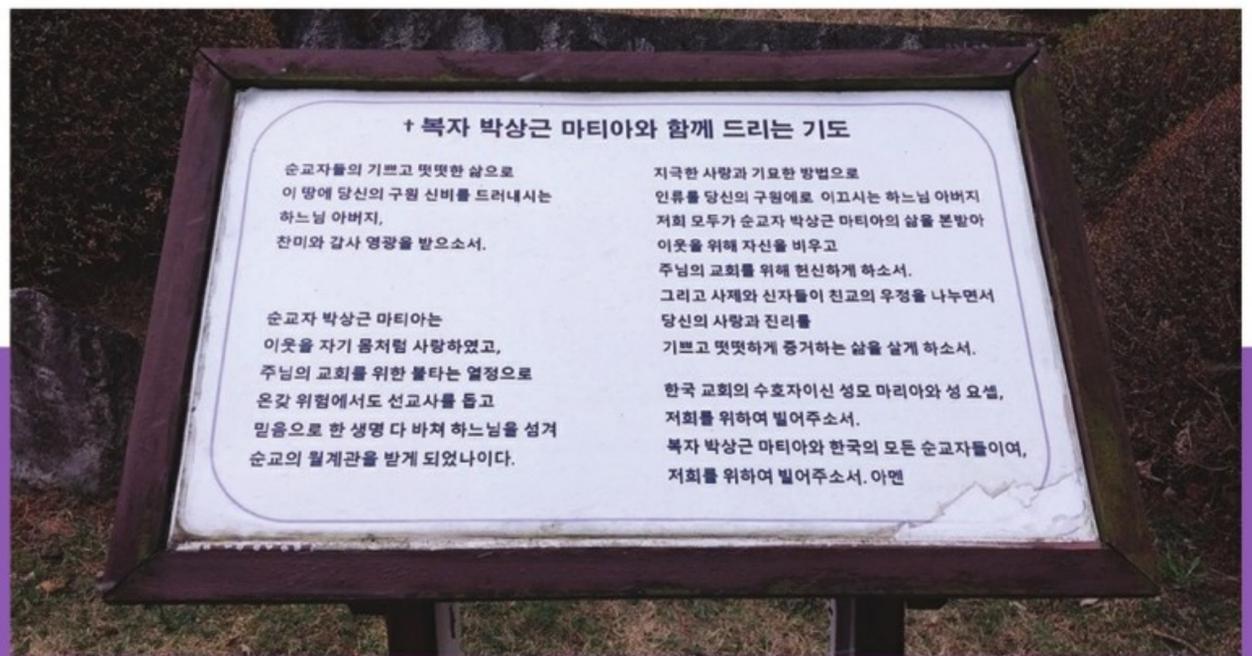


#우리성지프로필
 #두번째이야기
 #안동교구
 #대신가드림
 #팔로우,좋아요,알림설정
 #사진,글:아리

PROFILE



#성지표지석
#교우촌
#순교의역사



#갈레신부
#복자박상근마티아
#순교자의 삶

#위치 :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599-1
#<http://m.catholic.or.kr/web/holyplace/?seq=2345>





글 : 안실장

부루마불 성지

1 메트로 폴리타나 대성당



첫 번째 장소인 메트로 폴리타나 대성당은 멕시코 시티 소칼로 광장에 있는 대성당이예요. 300년 가까이 지어진 건물로 오랜기간 건축된 만큼 다양한 건축양식을 볼 수 있어요. 1층은 르네상스 양식, 2층은 바로크 양식, 네오클라식의 아치 등 역사적, 건축적인면 모두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가있는 성당으로 유명해요.



메트로 폴리타나 대성당 입구에는 특별한 예수상이 있는데, 바로 독의 그리스도라 불리는 검은 예수상이예요. 예수님을 어찌 검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

가톨릭 개종을 거부하던 원주민들이 개종을 강요하던 신부님이 미워 매일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는 신부님을 독살하려 예수님의 발등에 독을 발라 놓았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다가간 신부님의 눈앞에서 발등이 돌아가 입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독이 묻은 예수님상은 검은색으로 변했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개종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분 순례

다함께 1분 순례

GO!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보석 같은 문화유산이 빛나는 나라

: 멕시코 시티



멕시코 Mexico



196,437,500ha



1억 2,861만 3천명

2 과달루페 대성당



출처 : 나무위키

두 번째 장소는 과달루페 대성당이에요. 멕시코 시티 북쪽 테페악 지구에 위치한 과달루페 성당은 멕시코 시티 역사 지구에서 버스나 전철, 택시를 타고 이동해요. 가운데 건물이 원래의 성당인데 지반이 약해 한쪽이 기울어져 1974년에 새로 지어졌답니다. 왼쪽의 새로운 대성당의 지붕은 구약에 나오는 천막을 따왔다고 해요.

(좌: 새 성당, 중:구성당, 우: 카푸친 수녀회 건물)



출처 : 나무위키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1531년 원주민의 모습으로 발현되셨는데 루르드나 파티마의 성모님보다 300년 이상 앞선 세계 최초의 발현으로, 인디오 출신 농부였던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나셨어요. 성모님은 테페악 언덕에 성당을 지으면 멕시코 땅의 모든 백성이 안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증표로 후안 디에고의 망토에 자신의 모습을 담아 주셨어요. 이후 후안 디에고는 성당을 지키며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사람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켰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원주민들이 개종을 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900만 명에 달한답니다.

당시 후안 디에고는 아야테로 만든 망토를 입고 있었는데 20년이면 손상되는 아야테 원단이 현재 400년이 넘도록 옷감과 색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망토 자체에 다른 보존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멕시코인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멕시코의 가정마다 과달루페의 성모상을 모시지 않는 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나아가 남북 아메리카 전체의 수호자로도 공경 받고 계시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죠? 영상으로 함께해요!

다른 그림 찾기

3월 23일 교구청에서 “청’춘을 노래하라”라는 주제로 <청년과 대학생 연합회 음악콘서트>가 있었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곳 5군데를 찾아보세요.



3월 22일~23일까지 안동교구 <중고등부회장단 상반기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 모임은 회년을 맞이하여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27명의 중고등부 회장단이 서울대교구 일대 성지를 다녀 왔답니다.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숨은 그림 찾기

정답을 찾아 사진을 찍어
인별그램에 응모해주세요~!



책 / 공룡 / 엘런 / 손가락 / MIC



희망의 순례자들



계림동 성당



대구 가톨릭 대학교 순례

계림동 성당 친구들은 지난 여름 대구교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를 순례했어요.
비가 내렸지만, 분위기가 있어 멋있었어요~
전시관에 볼 자료도 많아서 시간가는 줄 몰랐어요~



봉화 성당



우곡 성지 순례

우곡 성지의 계곡이 떠오르는 여름이네요~
봉화 성당 친구들은 우곡 성지에서 주일학교 여름 신앙캠프를 했어요!
모두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우곡 성지 순례도 했습니다!





문경 마원성지와 진안리성지

의성
성당



의성본당 친구들은 무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마원성지와 진안리성지를 다녀왔어요~ 출발하기전엔 준비 기도를 하며 친구들과 함께 마원성지와 진안리성지에 대해 조사해 보고, 신문도 만들어 보았지요~ 직접 가서 내가 조사한 것도 살펴보고, 성지에서 기도하고, 가족과 미션도 수행하고, 신부님께 선물도 많이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연풍 성지 순례

점촌동
성당



점촌동 성당 친구들은 연풍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친구들이 순교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다같이 마음을 모아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을 의미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보여 주십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서 우리 안에 불어 넣어주시는 새로운 힘입니다. ¹⁾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의 길을 따라 인생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여정에 나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광객이 아닌 참된 순례자로 길을 나서십시오. ²⁾

1) 2024년 제 39차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 2024년 11월 24일.

2) ibid.

말씀의 순례

+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복십계명

1.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2.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3. 고요히 전진하라
4. 건강하게 쉬어라.
5. 주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6.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으라.
7.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8.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9.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10. 평화를 위해 일하라.



Republic of Korea



Mexico City



HABEMUS PAPAM ¹⁾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2025년 5월, 새롭게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첫 인사말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 베드로의 267번째 후계자이신 교황님은 “평화가 바로 희망의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빛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교황님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해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더 가까이 교황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 두레판 활동 인증

“있어보이는 우리말 교본 필사, 복음 퀴즈, 숨은그림찾기, 다른그림찾기” 등 두레판 활동을 7월14일까지 인증해주세요. 인증된 친구들 중 10명을 뽑아 선물을 증정합니다~!

#인스타그램 "안동교구 두레판"

http://www.instagram.com/andong_durepan

#사목국 메일 - sa3119@nate.com



1)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선언문. “이제 우리에게 교황이 있습니다”라는 의미.
 Habemus : 우리는 가지고 있다. Papam : 교황을 (Pope의 목적격)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36678 경상북도 안동시 마지락길 77)

